

##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Child's Sense of  
Identity and Peer Relationship

신희이(Hee Lee Shin)<sup>1)</sup>

문혁준(Hyuk Jun Moon)<sup>2)</sup>

### ABSTRACT

In this analysis of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child's sense of identity, and their effects on child's peer relationships, a survey was conducted of 506 6th grade students in 3 elementary schools of Incheon City.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showed that : girls had higher scores in academic identity and more positive factors in peer relationships than boys; when communic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ere more open, peer relationships were more positive and less negative; children with a stronger sense of identity had more positive factors in peer relationships; social identit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positive and general identit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negative peer relationships, respectively.

**Key Words** :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parent-child communicative style), 자아개념(sense of identity),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s).

### I. 서 론

아동은 출생하면서 맺게 되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전 생애 동안 수많은 관계를 맺

으며 성장하고 발달해간다. 생활환경의 범위 또한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를 넘어, 또래와의 관계로 확장되어지고, 이러한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학

<sup>1)</sup>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sup>2)</sup>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k Jun Moon, College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1 Yokkok2-dong, Buchon, Kyonggi-do 420-743, Korea  
E-mail : mhyukj@unitel.co.kr

습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전청소년기 (preadolescence)로 이정보다는 동성에게 관심이 더 많고, 동성의 단짝을 통해 또래에 대한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민영숙·박원모·천성문·이영순, 2007). 또한 사춘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적이긴 하지만 부모의 영향력은 계속되며,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미숙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시기는 또래로부터의 지지에 의지하게 되고, 우정과 같은 관계에서 사회적·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또래의 중요성을 입증하듯, 또래관계를 잘 맺는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긍정적 경험을 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즉, 이 시기의 또래관계는 매우 역동적이며, 사회적 발달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청소년기 아동들에게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은 그들이 달성해야 할 주요 과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또래내의 수용도 및 인기도가 주를 이루었고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변인과 학교생활적응, 부모의 양육태도, 애착형태 등 개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다수 있으나, 변인들간의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

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한다(백미숙, 2000). 즉 의사소통은 개인의 인간성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매개체로 자녀의 인성이나 또래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청소년기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박현향, 2004). 지금까지 이루어진 또래관계와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정선(1995)은 청소년 자녀와 가족구성원 간의 애정과 신뢰에 기초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에 더 긍정적으로 적응하는데 반해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할 때 자녀에게 부적응 행동이 유발되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사회적 지지의 하나로 작용하여 가정 내에서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서도 적절한 역할을 해내리라 기대할 수 있다(이연숙, 1990). 또한,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진행되는 과도기적 특성상 부모-자녀관계보다 또래관계의 비중이 커지는 시기에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일관적인데 반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즉 심미옥(1995)은 초기청소년기에 같은 동성끼리의 상호작용은 여아가 또래관계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갈등해결 시에도 긍정적인 전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이입과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또래와의 만족이 높은(윤미경, 1998; 김재은, 2007) 반면, 남이는 감정이입 보다는 같이 놀고 재미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호작용의 어울림 자체에 큰 의미를 가졌으며, 갈등 해결 시 전략을 대화보다는 힘의 논리로 부정적 해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재은, 2007; 유안진·한유진·

김진경, 2002).

한편, 자아는 다른 사람이 한 개인을 어떻게 보았느냐에 의해 발달되어가며, 아동은 주위사람과의 관계(이사라 · 박성연, 2001), 즉 또래관계를 통해 자기를 객관화 시킬 수 있다. 또래관계와 자아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임이 밝혀졌다(이사라 · 박성연, 2001). 즉, 또래의 수용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나고(양원경, 1999), 또래에 거부당하는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자아가치감이 낮게 나타났다(최미경, 2000). 특히 전청소년 시기에는 이러한 또래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Guire, 1983).

더 나아가 초기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아개념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권혜진, 1992).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자아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Gorden(2002)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 자녀는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였으며,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이나 열등감을 높임과 동시에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반항과 분노를 불러 일으킴으로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지연(2003)은 어머니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김대길(2004)은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도덕적, 학문적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학문적 자아개념형성에 의미가 있음을 송지연(2003)은 밝혀내었다.

종합해보면, 부모-자녀간에 개방적 의사소통

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자아개념형성에 도움을 줌으로써(최유진 · 유계숙, 2007)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어줌으로써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증진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권혜진, 1992). 그러므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의 경우 모든 영역의 수행에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Harter, 1990) 또래관계 또한 좋을 확률이 높다(이사라 · 박혜원, 2005; 장재숙 · 백경임, 2002). 반대로 낮은 자아개념은 개인으로 하여금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부정적 시각으로 봄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Khle, Kullka, & Klingel, 1982).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아동의 자아개념, 또래관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전청소년기의 또래관계와 가족 체계를 연결시키고, 미래의 긍정적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요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자아개념, 또래관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아동의 자아개념, 또래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또래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시내 3개의 초등학교 6학년 16개 학급 5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91%이었으며, 회수된 설문 중 복수응답 및 응답이 불분명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사용가능한 표본은 506부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가 각각 264명(52.2%), 242명(47.8%)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외동아가 53명(10.5%), 첫째가 181명(35.8%)이고, 둘째는 253명(46.0%), 셋째이상은 39명(7.7%)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5-40세가 200명(39.5%), 40-45세가 229명(45.3%)으로 35-45세의 어머니가 전체의 85%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35세 미만이 31명(6.1%), 45-50세는 36명(7.1%), 50세 이상은 10명(2.0)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327명(64.6%)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대졸이 155명(30.6%), 대학원 졸업 이상이 24명(4.7%)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직장이 있는 경우는 320명(63.2%)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186명, 36.8%)보다 약 1.7배정도 많았다. 가정의 생활수준은 中(부모소득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1명(77.3%)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上(부모소

득 5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1명(18.0%), 下(부모소득 250만원 미만)라고 응답한 경우가 24명(4.7%) 순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Ba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측정도구(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 PACI)’를 민혜영(1990)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20문항(개방형 10문항과 문제형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식 4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이다.

개방적 의사소통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주저함 없이 어머니께 내 주장을 이야기 한다.’, ‘나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 ‘어머니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다.’이며,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때때로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종종 어머니께 침묵을 지킨다.’, ‘어머니는 나에게 화가 나셨을 때 나를 모욕(욕을 하거나 경멸하는 태도)한다.’ 등이 있다.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83,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66으로 나타났다.

#### 2) 자아개념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검사지 일반적 자아 8문항, 가정적 자아 12문항, 사회적 자아 9문항, 학문적 자아 16문항으로 총 45문항을 사용하

였으며, Likert식 4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이다.

일반적 자아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지금의 나를 원치 않는다.’, ‘나는 집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다.’이고, 긍정적 자아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우리 집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나를 항상 도와줄 수 있다.’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아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근한 사람이다.’, ‘나는 내 또래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이고, 학문적 자아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고학년이 되어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등이다.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일반적 자아 .89, 가정적 자아 .92, 사회적 자아 .84, 학문적 자아 .93으로 나타났다.

### 3) 또래관계

Furman과 Buhrmester(1985)의 NRI(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항목 중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로 보이는 특성만을 추출하여 김진경(2002)이 번안하고 수정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또래관계의 질’을 긍정적 요인 20문항과 부정적 요인 20문항으로 분류하였으며, Likert식 4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이다.

긍정적 요인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나는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 금방 해결한다.’, ‘친구들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잘 한다고 인정해 준다.’이고, 부정적 요인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 때 말다툼을 하거나 싸

운다.’, ‘내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친구들은 나를 무시한다.’, ‘나는 친구들이 슬퍼할 때 나오는 상관이 없다고 느껴진다.’ 등이다.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긍정적 요인 .92, 부정적 요인 .82로 나타났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자아개념, 또래관계의 차이

<표 1>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자아개념, 또래관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의사소통유형의 하위영역 중 개방적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모두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에서는 일반 자아와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문적 자아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아( $M=2.87$ ,  $SD=.54$ )가 남아( $M=2.78$ ,  $SD=.59$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래관계에서는 하위영역 중 긍정적 요인이 여아( $M=2.96$ ,  $SD=.46$ )가 남아( $M=2.80$ ,  $SD=.4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요인은 남아가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아동의 자아개념, 또래관계의 상관관계

<표 2>는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또래관계의 상관관계에서 개방적 의사소통과 긍정적 요인은 정적 상관( $r=.44$ ,  $p<.001$ )을 보였으며, 부

&lt;표 1&gt;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유형, 자아개념, 또래관계의 차이

(N=506)

구분	성별	M	SD	t값
의사소통유형	개방적 의사소통	남	2.98	.50
		여	3.04	.52
	문제형 의사소통	남	2.21	.41
		여	2.20	.46
자아개념	일반적 자아	남	3.26	.68
		여	3.24	.59
	가정적 자아	남	3.35	.59
		여	3.36	.53
	사회적 자아	남	2.61	.55
		여	2.64	.47
	학문적 자아	남	2.78	.59
		여	2.87	.54
또래관계	긍정적 요인	남	2.80	.49
		여	2.96	.46
	부정적 요인	남	1.95	.36
		여	1.90	.36

\* $p < .05$  \*\*\* $p < .001$ 

정적 요인과는 부적 상관( $r = -.26, p < .001$ )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요인의 작용이 높아지며, 부정적 요인의 작용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유형의 하위영역 중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또래관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적 상관( $r = .15, p < .001$ )을 나타내었으며, 부정적 요인과는 정적 상관( $r = .32, p < .001$ )을 보이고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아지면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요인의 작용이 낮아지고, 부정적 요인의 작용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자아개념의 하위영역과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 자아, 다음으로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학문적 자아 모두 또래관계의 긍정적 요인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부정적 요인과는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아개

념이 강할수록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자아개념이 약할수록 부정적 요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개념의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에서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아개념과는 가정적 자아( $r = .66, p < .001$ ), 학문적 자아( $r = .41, p < .001$ ), 사회적 자아( $r = .38, p < .001$ ), 일반적 자아( $r = .36, p < .001$ ) 순으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가 자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가정적 자아, 학문적 자아, 사회적 자아, 일반적 자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문제형 의사소통과 자아개념과는 일반적 자아( $r = -.50, p < .001$ ), 가정적 자아( $r = -.42, p < .001$ ), 학문적 자아( $r = .24, p < .001$ ), 사회적 자아( $r = -.15, p < .001$ ) 순으로 부적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가 자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일반적 자아, 가정적 자아, 학문적 자아, 사회적 자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2>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 분	1.	2.	3.	4.	5.	6.	7.	8.
의 사 소 통 유 형								
1. 개방적 의사소통								
2. 문제형 의사소통	-.41***							
3. 일반적 자아	.36***	-.50***						
자 아 개 념								
4. 가정적 자아	.66***	-.42***	.62***					
5. 사회적 자아	.38***	-.15***	.34***	.41***				
6. 학문적 자아	.41***	-.24***	.44***	.49***	.60***			
또 래 관 계								
7. 긍정적 요인	.44***	-.15***	.32***	.45***	.66***	.48***		
8. 부정적 요인	-.26***	.32***	-.38***	-.33***	-.28***	-.29***	-.39***	

\*\*\* $p < .001$

3. 또래관계에 관련된 변인의 영향력

또래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수들간에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5이하(1.0 ~ 2.6)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하위변인 중 긍정적 요인을 종속 변수로 두고 아동의 성별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의 하위영역 및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개방적 의사소통,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모

<표 3> 또래관계-긍정적 요인에 대한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N=506)

독립변인	또래관계-긍정적요인		
	B	$\beta$	
배경변인	성별 <sup>1)</sup>	.13	.14***
의사소통유형	개방적 의사소통	.14	.14***
	문제형 의사소통	.07	.06
자아개념	일반적 자아	.02	.03
	가정적 자아	.12	.14**
	사회적 자아	.50	.52***
	학문적 자아	.03	.04
F값		72.59***	
R <sup>2</sup>		.51	

1) 0=남아 1=여아

\*\* $p < .01$  \*\*\* $p < .001$

&lt;표 4&gt; 또래관계-부정적 요인에 대한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N=506)

독립변인		또래관계-부정적요인	
		B	$\beta$
배경변인	성별 <sup>1)</sup>	-.04	-.06
의사소통유형	개방적 의사소통	-.01	-.02
	문제형 의사소통	.13	.16***
자아개념	일반적 자아	-.11	-.20***
	가정적 자아	-.04	-.06
	사회적 자아	-.09	-.12*
	학문적 자아	-.03	-.05
F값		12.92***	
R <sup>2</sup>		.21	

1) 0=남아 1=여아

\* $p < .05$  \*\*\* $p < .001$ 

형의 전체 설명력은 51%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경변인 중에서는 성별의  $\beta$ 값이 .14로 나타나, 아동의 성별이 남아보다 여아일 때 긍정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은 개방적 의사소통( $\beta=.14$ )이 또래관계의 긍정적 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또래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중 가정적 자아( $\beta=.14$ )와 사회적 자아( $\beta=.52$ )가 또래관계의 긍정적 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가정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또래관계의 하위변인 중 부정적 요인을 종속변수로 두고 아동의 성별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영역 및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긍정적 요인의 결과와는 달리 아동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은 문제형 의사소

통만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개념 중 일반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은 문제형 의사소통( $\beta=.16$ )이 또래관계의 부정적 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중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또래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중 일반적 자아( $\beta=-.20$ )와 사회적 자아( $\beta=-.12$ )가 또래관계의 부정적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자아개념 및 또래관계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적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모두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혜진(2005)과 정태연·박미형(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요즘 부모들이 자녀양육을 함에 있어 남녀 차이를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아개념에서는 일반적 자아와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문적 자아의 경우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홍숙(2001)의 성별에 따른 학문적 자아개념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전청소년기 남아에게 학습 관련 세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기대감을 갖도록 부모의 적극적인 태도와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래관계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긍정적 요인을 높게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요인은 남아가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김재은, 2007; 최유진·유계숙, 2007; 임정하·정옥분, 1997)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전청소년의 시기는 동성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밀착되는데 같은 동성끼리의 상호작용은 여학생이 또래관계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갈등해결 시에도 긍정적인 전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이입과 공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아의 경우 또래와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요인에서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나유미(2000)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나,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고 한 선행연구(김재은, 2007; 유안진·한유진·김진경, 2002)와는 불일치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부정적 요인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결과는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즉 남아가 갈등해결 전략을 대화보다는 힘의 논리로 해결 전략을 사용하므로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각별하게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또래관계의 긍정적 요인이 높아지고, 부정적 요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장영애·박정희, 2008; 신호식·김근화, 2004; 김경희, 2002; 김연화·정영숙, 2005)와 일치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아지면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요인이 낮아지고, 부정적 요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경주와 신호식(1990), 최인경(2001), 이사라와 박혜원(2005)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안에서의 사회적 발달이 실제적인 사회에서 아동이 또래관계를 맺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및 적응수준이 높아져 또래관계에서 유능감을 보이며 학교생활적응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문제형 의사소통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방해함으로써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문제행동을 야기시키고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등 부정적 요인이 높았다는 연구결과(황은영·도현심, 2008)에서 보듯이 또래관계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데 있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개념이 강할수록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자아개념이 약할수록

또래관계에서 부정적 요인이 높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이사라·박성연, 2001; Harris, 1995; 최유진·유계숙, 2007; 이사라·박혜원, 2005; 장재숙·백경임, 2002; 양원경, 1999; 최미경, 2000, Kahle et al., 1982; McGuire, 1983)과 일치하는 것으로 높은 자아개념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역할수행 능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도 향상되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보이는 반면, 낮은 자아개념은 개인으로 하여금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초래하고 반복되는 또래 거부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전청소년기의 긍정적 자아개념 발달은 또래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재차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아개념의 긍정적 요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아개념의 부정적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는 자신이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모님은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자신을 도와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가정적 자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모-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과 소중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일반적 자아개념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또래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정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개방적 의사소통, 성별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일반적 자아, 사회적 자아, 문제형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인에

게 너그러우며, 또래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긍정적 해결 전략을 위해 개방적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또래관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낮았을 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또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다는 Gorden(2002)의 결과에서 보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문제형 의사소통 방법은 자녀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개념형성을 방해하고 죄의식이나 열등감을 높임과 동시에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반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낮은 자아개념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있어 높은 자아개념과 부모-자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자아개념이 낮고 부모와 문제적 의사소통을 했을 때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개방적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시켜주고 긍정적 또래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인천 시내의 초등학교생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설문지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중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만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으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 또한 중요한 변수로 후속연구에서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변인들간의 관계 및 영향력만

을 밝히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연구나 질적 연구방법 등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성 및 영향력 있는 변인들을 밝힘으로써 또래관계가 어려운 아동들에게 어떤 부분에 개입해야 할지, 또래관계개선 프로그램 개발 시 어떤 영역을 포함해야 할지 등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적 방법의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참 고 문 헌

강홍숙(2001).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문적 자아개념 · 부모의 학력 · 성별 ·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학회지*, 14(1), 249-261.

고려옥(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고상미(2000).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국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권혜진(1992).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경희(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대길(200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초등학교생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계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연화 · 정영숙(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 경향. *대한가정학회지*, 43(10), 103-114.

김영미 · 심희옥(2000).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4), 159-175.

김은경(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재은(2007).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와 또래동조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정선(1995).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지연(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진경(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희경(199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현정(199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또래지위 및 호기심과 청소년 비행성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홍규 · 최재향(2006), 초등학교생의 학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미래교육연구*, 13(4), 57-79.

나유미(2000). 또래에 대한 아동의 내적표상모델과 또래수용 및 친구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1(4), 143-158.

남현주(1996).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 유형과 논리사고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문영숙(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4(4), 405-414.
- 민동일(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역기능과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민영숙 · 박원모 · 천성문 · 이영순(2007).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공격성 및 또래관계와의관계. *정서 · 행동장애 연구*, 23(2), 115-140.
- 민혜영(1990). Circumf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미선(2007).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시현(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및 가족체계유형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성연(1994).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와 또래 지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원모 · 천성문(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간의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5(1), 41-59.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현향(2004).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자아개념,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백미숙(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백승미(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설남경(2000).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지연(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초등학교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효식 · 김근화(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7(2), 47-58
- 심미옥(1995). 또래집단의 성역할 사회화에 관한 교육 사회학적 논의. *춘천교육대학교 논문집*, 35, 91-106.
-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피로함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오경희(1989). 아동의 또래동조성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오윤선(2008).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5), 23-49.
- 유안진 · 한유진 · 김진경(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윤미경(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경주 · 신효식(1990). 청년기 자녀의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13.
- 이사라 · 박성연(2001). 부모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사라 · 박혜원(2005).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어머니의 애착이 미치는 영향 및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39-57.
- 이연숙(1990).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영주(2000). Rogers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학생생활센터*, 80-92.
- 이정아(2002).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자

- 기호능감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지연(2003)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간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선화(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정하 · 정옥분(1997).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63-174.
- 장영애 · 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9-85.
- 장재숙 · 백경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11.
- 장혜순 · 강태완(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3), 107-112.
- 전상준 · 신봉호(2008). 칭찬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7(2), 255-265.
- 정원식(1968). 자아검사지 및 실시요강. 서울 : 코리안 테스트센터.
- 정혜진(2005). 어머니와 자녀의 성격적 특성이 또래관계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혜진 · 정태연 · 박미형(2008). 어머니와 아동의 성격적 특성이 아동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지효숙(2005).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자녀와의 친밀도 관계 연구. *부산교육학연구*, 20, 153-170.
- 최미경(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인경(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유진 · 유계숙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이 교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59-75
- 최지은 · 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허주연(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체계가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황은영 · 도현심(2008). 또래괴롭힘 집단의 유형에 따른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419-432.
- Barn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Dusek, J., & Flaherty, J. (1981). The development of the self-concept during the adolescent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4), 191.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Gorden, T. (2002).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he tested new way to raise responsible children*.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 Harris, J. R. (1995). 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02(3), 458-489.
- Harris, J. R. (1998). *The nurture assumption : Why children turn out they way they do*. New York : Free Press.
-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Greca(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 Boston : Allyn and

- Bacon.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hip. In B. Laursen(Ed.),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 Close friendship in adolescents*(pp.3-22). San Francisco : Jossey-Bass.
- Kahle, L. R., Kullka, R. A., & Klingel, D. M. (1982). Low adolescent self-esteem lead to multiple interpersonal problems : A test of social-adap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96-502.
- McGuire, W. J. (1983). A contextualist theory of knowledge : Its implications for innovations and reform in psychological research.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6(pp.1-47). New York : Academic Press.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2009년 2월 28일 투고, 2009년 7월 6일 수정  
2009년 7월 7일 채택